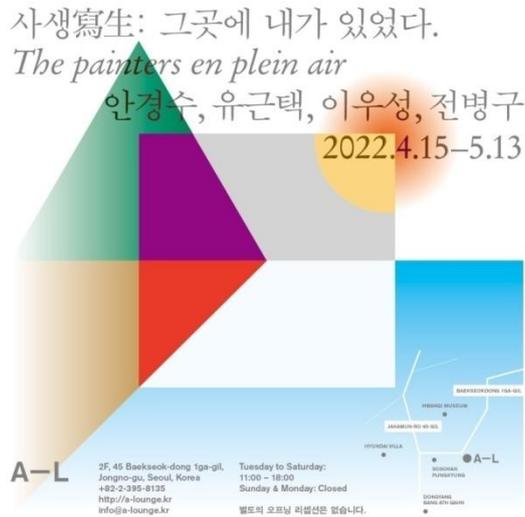


[보도자료] 총 5쪽

작성자	최하림 (summerforest@a-lounge.kr , 02-395-8135)
배포일	즉시 배포

안경수·유근택·이우성·전병구 《사생(寫生): 그곳에 내가 있었다》



-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여 간 안경수, 유근택, 이우성, 전병구 작가의 사생을 주제로 한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 드로잉 뿐만 아니라 유채, 아크릴릭 등 다양한 매체들로 제작된 작품들을 작가 별로 약 10점 가량 소개하는 전시

○ 전시 개요

참 여 작 가: 안경수·유근택·이우성·전병구

전 시 제 목: 사생(寫生): 그곳에 내가 있었다

일 정: 2022년 4월 15일(금) - 2022년 5월 13일(금)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별도의 오프닝 행사는 없습니다.

○전시 정보

에이라운지(A-Lounge)는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안경수, 유근택, 이우성, 전병구 4인의 그룹전 《사생(寫生): 그곳에 내가 있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첫 번째 기획전으로 회화의 여러 장르 중 하나로 인식되어 온 '사생'의 의미를 네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탐구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사생(寫生): 그곳에 내가 있었다》에서 사생의 의미는 확장한다. 실외로 나가 풍경을 그리는 물리적인 범주에서 마음 속에 내재한 심상을 풍경에 덧입히는 사의적 범주까지, 그리고 자연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사생에서부터 현대 도시의 일상을 담아낸 오늘날의 사생까지, 네 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생을 풀이한다.

안경수(b.1975)에게 풍경을 그리는 행위는 일부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씌울 하나의 겹을 생성하는 일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하는 《더미》(2022) 연작은 작가의 작업실이 위치한 서울 변두리의 풍경, 즉 사람들의 손길이 곧 잘 닿지 않는 덩불, 길 가의 쓰레기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더미라고 지칭한 작가는 그 속에 들어가 10일 간 매일 한 작품씩 사생했고, 며칠 후 완성한 작품을 그 자리로 들고가 설치한 뒤 풍경과 그림이 겹쳐진 상태를 다시 영상으로 기록했다.

유근택(b.1965) 작가에게 사생이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생성되는 회화적 언어를 찾아가는 무한한 과정이다. 작가는 밖으로 나가 동일한 풍경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범하기 그지 없는 사물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진행형의 상태로 작가의 화폭으로 옮겨간다. 《The Window》(2021), 《앞 산 연구》(2013)는 각 안과 밖에서 작가가 동일한 광경을 보고 완성해낸 연작들로 사생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우성(b.1983)은 최근 작업실이라는 안정된 공간에 답답함을 느끼고 낮선 공간에서 즉흥에 맡겨 작업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직접 한강으로 나가 그림을 그리거나 SNS를 통해 작업 과정을 라이브로 송출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요소들을 작품 속에 수용해보고자 노력한다. 눈앞에 있는 대상을 빠르게 본 뜨고 순간의 우연을 더욱 빠르게 포착하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근래에는 OHP 필름을 매체로 채택했다. 이번 전시를 염두에 두고 한강의 풍광을 꾸준히 기록한 19개의 연작은 드로잉 복의 형태 그대로 전시될 예정이다.

전병구(b.1985)에게 사생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순간을 기록했던 사진 등을 기반으로 그 때 작가의 감상을 소환하여 작품에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렇기에 비누 곶, 집 주변의 하천, 어느 겨울 날의 바닷가 등 일상의 주변을 소재로 삼고 있는 언뜻 평범해 보이는 그의 그림 속에는,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 스스로가 담겨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 특유의 정물과 일상의 순간이 담긴 풍경화가 함께 전시된다.

○ 작가 소개

안경수 (B.1975)

안경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단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했다. 서울과 위성 도시 사이에 위치한 변두리의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여 작업한다. 갤러리 현대 윈도우갤러리(2014), 갤러리 조선(2016), 상업화랑(2018), 피비갤러리(2019), 오퍼센트(2021) 등에서 꾸준히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중근당 예술지상 수상작가전>(세종미술관, 2017), <두 동반자의 비밀>(SeMA 참고, 2018), <회화의 시간>(세종문화회관, 2019), <사랑의 기술>(토탈뮤지엄, 2020), <모스크바-서울: Common Ideas>(모스크바 박물관, 2021) 등이 있다. 2021년에는 소버린 아시안 예술상(Soverign Art Foundation)에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유근택 (B.1965).

유근택은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동양화의 지필묵을 근간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일상을 담아낸다. 1991년 관훈갤러리를 시작으로 금호미술관(1994, 1997), 사비나 미술관(2004, 2009, 2021), 갤러리 현대(2012, 2013, 2017), OCI 미술관(2014) 등 유수의 전시 공간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올해 초에는 엔트워프의 뉴차일드 갤러리(Newchild Gallery)에서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소마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금호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현재 성신여대에서 교수로 부임 중 이다. 2000년에 석남 미술상, 2010년 하종현 미술상, 2021년에는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했다.

이우성 (B.1983)

이우성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조형예술과에서 전문사를 취득했다. OCI 미술관(2013), 아트스페이스 풀(2015), 학교재 갤러리(2017), 두산갤러리(2021)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일민미술관, 2017), 2018 광주 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8),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경기도미술관, 2019), <내가 사는 피드>(아르코미술관, 2020), <수행하는 회화>(This is not a church, 2021) 등 단체전에도 다수 참가했다. 2013년 OCI Young Creatives에 선정된 바 있다.

전병구 (B.1985)

전병구는 계원조형예술대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201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2017), OCI 미술관(2018), 이유진 갤러리(2021)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제 3의 과제전>(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2015), <Twin Peaks>(하이트 컬렉션, 2016), <Nuance>(갤러리 기체, 2017), <익숙하거나, 혹은 낯선>(교보아트스페이스, 2018) 등 단체전에도 꾸준히 참가해왔다. 2017년에는 2018 OCI Young Creatives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 대표 작품



안경수

더미 a heap

53 x 45.5cm

oil on canvas

2022



유근택

앞 산 연구

50.6 x 60.6cm

oil on canvas

2013



이우성

29.7 x 21cm

acrylic gouache on transparency film

2022



전병구

무제

31.8 x 40.9cm

oil on canvas

2022

*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Seoul